

200자 안내

너를 묻은 가슴에는 마가목 나무가 자란다

크리스토퍼 리치 지음 / 현준만 옮김

소설 「The Send off」로 지난 74년에 국제펜 클럽상을 수상했던 영국의 작가가 1년여에 걸쳐 둘째 아들 마틴에게 보낸 편지글을 모아 엮은 책. 장남이 11살의 나이로 죽은 뒤 씌어진 이 글은, 졸지에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망연자실한 슬픔에서 벗어나 남은 아들에게 사랑을 듬뿍 주려는 父情을 느끼게 한다.

동문사 / A5신 / 270면 / 4200원

세종대왕 (1~12)

박종화 지음

태조 이성계의 집권초기부터 세종대왕이 승하하기까지에 이르는 조선전기 60여년에 걸친 격동의 역사를 그린 대하역사소설. 「금삼의 피」를 매일신보에 연재하면서 역사소설의 일가를 이루었던 월탄이 조선일보에 8년 동안 연재했던 이 소설은, 방대한 스케일과 해박한 역사지식을 바탕으로 씌어진 작품으로 “조선 초기의 왕조사를 생생하게 복원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는 작품.

기린원 / A5신 / 각 342면 내외 / 각 5500원

중소기업의 성공조건

삼일회계법인 엮음

국내 경영권설립그룹의 중소기업연구팀이 철저한 현장조사와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성공의 조건과 비결을 제시한다. 개인의 편견에 쌓인 경험담이나 외국의 사례를 나열한 책들과는 달리 한국의 중소기업이 처한 환경을 직시하고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삼천리 자전거 등 16개의 성공한 중소기업이 갖는 공통점을 추출해 그 비결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김영사 / A5신 / 370면 / 6500원

꽃은 흙에서 핀다

김기철 지음

한때 고려대 영문과에서 강의를 맡기도 했던 도예가의 수필집. 자연으로 돌아가 흙과 꽃 속에서 자신의 삶을 가꾸어가고 있는 저자는

가마불과 토방과 울안의 꽃들에 파묻혀 살아가며 얻은 특유의 사유방식과 우리 것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54편의 수필에서 유감없이 보여준다. 인간성 상실과 물질만능에 젖은 현대 문명에 대한 예리한 비판도 그의 글에서 묻어나는 메시지다.

샘터 / A5신 / 298면 / 4500원

生死橋 (1~5)

와룡생 지음 / 사운비 옮김

대본소에서만 볼 수 있던 무협소설이 서점가에서 단행본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나온 중국의 대표적 무협소설작가의 작품. 삶과 죽음의 다리를 의미하는 생사교를 무대로 한 여인의 부정한 행실 때문에 무너진 일가족의 복수를 위하여 무림에 돌아온 주인공 좌소백의 무용담이 펼쳐진다. 원제는 ‘天劍絶刀’. 국일문학사 / A5신 / 310면 / 4500원

빙산

클라이브 커슬러 지음 / 이기원 옮김

공군 복무, 광고업계 종사, 국립해양연구소 운영 등의 다양한 체험을 작품에 담은 작가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미스터리소설. 어느날 해안경비대 초계기는 우연히 1년전 실종 신고된 잠수함 렉스호를 발견한다. 이 배의 비밀을 캐려는 주인공 피트는 전세계를 장악하려는 다국적기업 허미트주식회사와 선박재벌 오스카 론드하임의 음모를 밝혀내는데...

동쪽나라 / A5신 / 392면 / 5000원

역설의 논리학

노자끼 아끼히로 지음 / 조미영 옮김

91년에 「패러독스, 패러독스」란 제목으로 출판됐던 책의 개정판. 얼핏보면 사실에 어긋나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을 역설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 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수학의 역사나 일화, 정 등의 재미있는 방식으로 설명해 논리적 사고를 키워주는 데, 저자가 대학에서 문과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했던 노트를 정리한 것이다.

새날 / A5신 / 264면 / 5000원

언제 고향에 갈 수 있을까

안춘근 지음

최근 타계한 원로 출판학자였던 저자가 망향의 정을 절절하게 쏟아낸 수필집. 유작이 되어버린 이 책의 서문에서 저자는 자신의 좌우명을 “검소한 생활과 화려한 창조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바로 그런 그의 좌우명을 실천했던 일상의 기록이 모두 81편의 작품에 담겨 있다. ‘수필과 인생’ ‘고향의 추억’ ‘이상과 현실’로 묶은 이 책을 통해 저자의 진솔한 책에 대한 사랑과 인생관을 엿볼 수 있다.

범우사 / A5신 / 322면 / 5000원

컴퓨터를 켜고 마음을 열고

고규홍 지음

컴퓨터의 기본을 중고교생과 일반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씌어진 컴퓨터입문서. 컴퓨터를 켜는 과정부터 도스의 기본적인 부분을 설명한 뒤 컴퓨터에서 가장 쓰임새가 많은 글들(워드프로세서)을 활용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무한한 컴퓨터통신의 세계와 컴퓨터 바이러스, 까다로운 컴퓨터 관리, 그리고 사용자의 건강관리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풍부한 화면 컷과 사례별 목록이 권말부록.

푸른나무 / A5신 / 292면 / 5600원

슬픈 사랑도 아름다워라

헤르만 헤세 외 지음 / 김승욱 엮음

사랑을 소재로 한 서양의 아름다운 소설 10편을 한데 묶은 단편집. 투르게네프의 「사랑의 개가」를 비롯해 서머셋 모옴의 「레드」, 첫사랑을 그린 헤르만 헤세의 「라틴어학교 선생」, 실화를 바탕으로 한 프란츠 그릴팔체의 「젠도미르 수도원」, 두자매와 한남자의 비극적인 사랑을 다룬 토마스 하디의 「엘리샤의 일기」 등의 작품이 실려 있다. 가슴 저미도록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깊은샘 / A5신 / 316면 / 5000원

머리에 양념을 뿌리자

간바 와타루 지음 / 박미옥 옮김

창의력이 끊임없이 요구되는 현대인들에게 바람직한 두뇌사용법과 정신적 장애를 제거하는 방법, 머리에 웃음의 충격파를 주는 연습문제, 히트상품에서 배우는 발상법 등을 일러주는 책. 저자는 “어떻게 하면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또는 “왜 기발한 발상이 떠오르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는 독자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한다. ‘바람직한 두뇌사용법’ 등을 친절하게 안내한다.

삼천리 / A5신 / 272면 / 4500원

우리라고 사랑하지 말라는 법 있나요

송민호 지음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그들만의 사고와 고민을 다채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청소년 전문극작가의 소설. 진로문제, 대학진학, 취업 등 기성세대들에 의해 그들에게 주어졌던 많은 짐을 떠안고, 친구문제와 이성문제까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담고 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한 희곡과 시나리오를 써온 작가의 애정어린 시선이 느껴지는 작품으로, 중간중간에 희곡형식을 빌어온 것이 특징적.

한라 / A5신 / 248면 / 4500원

電氣通信法典

한국통신학회 엮음

전파미디어 등에 의한 이동통신기술이 전기통신기술을 정보통신기술로 승화시켜야 하는 현대계에서 행정·기술·운용 및 연구에 관계된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관련법령에 대한 이해와 생활화를 돕기 위해 편찬된 법전. 제1장 ‘전기통신기본법령’ 제2장 ‘전기통신사업 관련법령’ 제3장 ‘전파법령’ 제4장 ‘정보통신 관련법령’ 제5장 ‘유선방송관련법령’ 제6장 ‘기타 법령’ 순으로 구성돼 있다.

동방기획 / A5 / 776면 / 30,000원

소설 사립대학

손장순 지음

한양대 불문과 교수였던 작가가 전업작가로 나선 뒤 대학사회를 소재로 쓴 장편소설. 사립대학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비리와 교직원들의 권모술수와 부조리에 염증을 느낀 주인공 고주연은 어렵게 얻은 정교수 자리를 과감히 버린다는 줄거리로 엮여져 있어, 최근의 대학문제를 연결해 시사하는 바가 큰 작품이다.

청아 / A5신 / 392면 / 5500원

계간지

오늘의 문예비평 (93년 여름)

(특집) 표절이나, 문학기법이나 ▲현대문학의 정체성 재고, 표절·패로디·패스티쉬의 문예학적 고찰을 중심으로(문선영) ▲자기 반영성, 혹은 새로운 문학형식의 예고 90년대의 패로디·패스티쉬를 중심으로(김경복) ▲90년대 소설의 표절과 패스티쉬의 양상(황순재)

(비평이론) 기호학 ▲롤랑 바르트의 기호학(하운금) ▲시적 담화의 기호학적 분석 동위소 검출을 통한 랭보의 「지옥에서의 한 철」 서시 분석(최춘식) ▲기호학적 문학연구의 성과와 전망(송효섭)

(문예사조) 낭만주의 ▲낭만주의, 지적 아방가르드(정인모) ▲한국 낭만주의 시의 특질(박경수)

(고전비평이론) 한국 고전문학비평의 이해(김병권)

책읽는사람 / A5신 / 276면 / 4000원

창작과 비평 (93년 여름)

(좌담) 90년대 소설의 흐름과 리얼리즘(염무웅 / 현기영 / 김향숙 / 임홍배 / 권성우)

(평론) ▲베트남전쟁 소설론: 용병의 교훈(송승철) ▲통일독일의 문학논쟁(김누리) ▲암울한 대학생살을 비춘 시적 능력(김남주) ▲분단과 통일을 다시 생각해보며(이종오) ▲‘동아시아’ 구상과 한·중·일 관계(문익환)

▲일본의 아시아 에너지 공동체 구상(강태호)
 ▲근대성과 혁명(P. 앤더슨)
 [문화시평] '한'에 이르지 못한 아름다운 영화 「서편제」(김영혜)
 [특집] 여성시인 12인선(허영자/천양희/강은교/김혜순/황인숙/나희덕/양정자/박라연/이선영/김태정/김인희/최영미)
 [시] 기찬 딸 외 6편(김진완)
 [소설] ▲탐골공원古今(김문수) ▲티 타임의 모녀(박완서) ▲칼날과 사랑(김인숙) ▲목마른 계절(공선옥)
 창작과비평사 / A5신 / 452면 / 6000원

과학사상 (93년 봄·여름)

[권두논문] 음양오행을 과학이랄 수 있는가(김용욱)
 [특집] 동양의학과 서양의학 ▲한의학의 원리와 과학성(정우열) ▲현대의학 속의 동양의학(전세일) ▲생물학 관점에서 본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서정선)
 [대담] 동양의학과 「황제내경」(홍원식, 김남두)
 [논단] ▲동서의 과학과 사회(조지프 니덤) ▲동서문명 비교사론(김필년) ▲우리 국토의 생태계 보전(홍욱희)
 [현대과학의 조류] 복잡성의 과학(이호연)
 [해외논단] 생물학은 물리학의 연장인가(로버트 어그로스, 조지 스탠시우)
 [기획연재] 한국과학사상사-시험적 시론3(박성래)
 범양사출판부 / A5신 / 250면 / 4500원

세계의 문학 (93년 여름)

[기획토론] 영상세대의 출현과 인식론의 혁명(정근원/강명구/도정일/김용호/김성기)
 [김수영 미발표 유고] ▲서간문, 저 하늘 열릴 때 ▲서평, 들어라 양키들아
 [논문] ▲왜 하이데거가 중요한가(박이문) ▲발터 벤야민과 그의 목시록적 역사관(임철규) ▲한국근대문학비평에 나타난 '타자의 현상학' 연구 1(권성우)
 [시] 설창수/이태수/최승호/장석주/황지우/정자선/성원근/사이토 마리코
 [서평] 이운택/김원우/박인철/권오룡
 [제17회 오늘의 작가상] 흰 뱀을 찾아서(남상순)
 민음사 / A5신 / 426면 / 7000원

문학과 사회 (93년 여름)

[특집] 인권운동과 법의 정신 ▲좌담(이돈명/조준희/홍성우/김형태) ▲억압된 사회에서의 법률가의 역할(안경환) ▲'무죄'라는 말 한마디-황인철 변호사를 회고하며(김정남) ▲자료-故황인철 변호사 추도사 및 연보
 [오늘의 한국문학] ▲총평-문학공간, 1993년 여름 ▲폭력의 시대와 그 성장(성민업)

[테마서평] 국어사 연구의 전통과 그 계승발전(권재일)
 [비평·논문] ▲「독일 이데올로기」는 계간지용 원고로 집필되었나? (정문길) ▲어떤 아이러니-허구의 정서, 허구의 방식(김지영)
 [시] 정호승/이성복/황인숙/정일근/함성호/이갑수/이원
 [소설] 김석희/강문혜/심석구
 문학과지성사 / A5신 / 344면 / 5000원

현대비평과 이론(93년 봄·여름)

[특집 I] 문학이론의 번역 그 성과와 앞으로의 전망 ▲문학이론의 번역과 수용(김용권) ▲문학이론 번역의 실상과 과제(김효중) ▲중국문학의 번역 소개현황(서경호) ▲영국비평이론의 수용과 전망(여홍상) ▲현대 미국문학비평이론 번역의 수용 현황과 문제점(송승철, 정정호)
 [특집 II] 한국현대비평의 점검 ▲한국현대드라마 비평의 현실과 그 비판(민병욱)
 [논문] ▲언어, 신화, 카시이러(김병욱) ▲희망의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와 문학(안삼환) ▲철학적 담론에 있어서 언어의 위상: 니체의 경우(김중갑)
 한신문화사 / A5신 / 382면 /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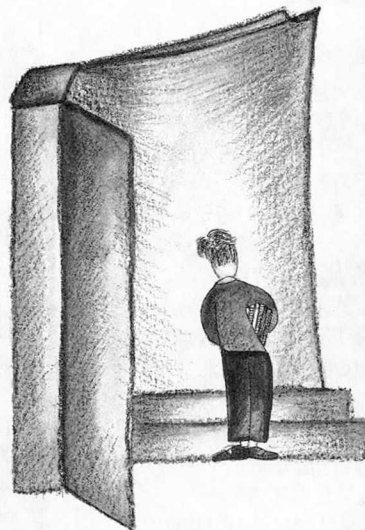
반년간지

사회비평 (93년 상반기)

[특집] 전환의 전통과 사상의 탄생 ▲위기의 역사와 극복의 사상(김조년) ▲우리는 이제 모두 사회주의자? (서병훈) ▲중국의 개혁, 논리·동학 그리고 사회적 비용(박길성) ▲라틴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시장이 생산하는 자유(이성형)
 [오늘의 쟁점] 한국경제에서의 독점과 종속 ▲한국사회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김수행) ▲한국자본주의와 독점개발(홍장표) ▲한국자본주의와 경제적 종속의 전망(정성진)
 [고전산책] 최제우의 「동경대전」(김인환)
 [연구노트] 노동계급의 역사와 그 현대적 의미에 대한 탐구(김경일)
 나남 / A5신 / 454면 / 6800원



『엽서』를 읽고서



*『엽서』는 신영복 선생의 옥중편지를 친구들이 모아서 영인한 책입니다.

선생님의 글을 읽고
 글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떤 책을 기획해서 출판사에 소개할까'
 고민하는 제가 갑작스레 대견하게 생각되었습니다.
 한편 선생님의 글처럼 진솔하고 사랑을 일깨워주는
 책을 출판사에 소개하고 있는지
 큰 걱정이 산을 이루었습니다.
 이 걱정과 두려움을 이기고서
 책문화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매진하려는 한솔기획에 힘을 주십시오.
 책과 더불어 커가는 한솔기획
 책을 아름답게 만드는 한솔기획
 책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한솔기획



한솔에서 하는 일

한솔원고은행 · 출판기획 · 편집교정 및 제작 대행 · 디자인 · 전자조판 등

한솔의 새 식구를 뽑습니다

- 편집기획자(편집·기획 경력 3년 이상, 영어·일어 가능자 우대) 0명
 - 디자이너(디자인 경력 3년 이상, 일러스트 가능자 우대) 0명
- 희망자는 이력서, 자기소개서(200자 원고지 10매)와 함께 편집기획자는 책 1권, 디자이너는 작품 5점 이상을 1993년 6월 26일까지 반드시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1차 합격자는 개별통보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4번지 옥빌딩 706호(세종문화회관 뒤) 대표전화 : 735-4997 팩스 : 722-3866